

도널드 파울러 박사, 구약의 배경, 강의 17, 고대 근동의 왕권

© 2024 돈 파울러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17회기 고대 근동의 왕권입니다.

그럼,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왕권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해받기 쉽습니다. 나는 내 말이 좋은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결혼한 지 48년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려는 일의 흐름을 실제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려는 것은 왕권이 하나님의 성실성과 관련된 주제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권을 축복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왕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수단이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 시행되지 않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망명 중에 그들은 땅도 없고 왕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포로된 국가들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왕권은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들이 전문가이고 테이프를 보고 내 말을 들었다면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Walter Brueggemann의 작품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Brueggemann은 개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왕권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이 선전이라고 제시합니다.

글쎄요, 그의 요점은 잘 이해되었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방문하겠습니다. 원한다면 나를 멈추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그것이 잘 받아들여진 요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볼 때 사실상 모든 문헌은 왕을 대신하여 의뢰되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좋은 왕이라는 것을 신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고안된 선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권에 대한 성서의 견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순수한 선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실 영웅들조차도 비극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서에서 왕권을 선전으로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왕은 심판을 받을 왕임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위대한 다윗조차도 이중적이고, 거짓말쟁이이고, 살인자이고, 간음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선전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왕권은 중심적인 길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이야기를 펼치시는 방법의 핵심 특성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왕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왕권 모델을 원한다면 실제 왕권 모델이 필요하며 이것이 내 판단입니다. 나는 전에도 틀렸습니다. 물론 다윗은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었지만 진정한 왕권 모델은 다윗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왕권 모델은 모세입니다.

이제 제가 수업 노트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셨으니 이 노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수업의 다른 수업 노트 중 하나에서 가져온 몇 가지 정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주의깊게 검토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하고 자료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왕권이 어떻게 예측되는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표준 접근 방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창세기의 몇 구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아, 저 사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그것은 왕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그들의 잘못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왕권이 중심 논제이므로 사울 앞에서 왕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학자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왕실 또는 준정상적인 용어로 묘사되고 있다는 데 거의 한결같이 동의합니다. 둘째, 창세기 14장의 살렘에 있는 멜기세덱의 중요한 이야기에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살렘은 물론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이 예루살렘과 연결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사용됨. 멜기세덱은 나의 왕이 의롭다 또는 세덱의 왕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이지만 창세기 이야기에서 그가 중요한 인물이고 분명히 왕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가 이것이 왕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14장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서 나올 왕들에 관해 약속하신 것이 17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7장 6절에서 하나님은 왕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잘 알려지지 않은 몇몇 구절은 사사기, 죄송하지만 창세기에 관심을 돌리겠습니다. 35장을 나와 함께 읽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왕권에 관해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왕권에 관해 동일한 약속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럼 창세기 35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물론 밧단 아람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도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은 야곱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될 것이다. 즉, 아브라함이 야곱이라는 인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엘 샤다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그대로니라.

한 나라와 여러 나라의 무리가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게서 나오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약속과 동일합니다.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네 뒤를 잇는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49장 10절에서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유다 지파의 왕권이 구체적으로 예언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에서 우리가 좋든 싫든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의 일부가 바로 왕권의 부족이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 지도자의 최고의 모범인 모세에게 빠른 여행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여기가 제 생각의 일부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좋아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단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신약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모세의 사례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나 사물은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세보다 나은 새 모세이시지만, 그는 새 모세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매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구약성서의 어떤 왕보다도 가장 긴 부름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신적으로 선택되었으며 본문은 계속해서 그 점을 지적합니다.

둘째, 출애굽기 3-4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과 성경 모두에서 신성하게 불리는 왕권의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나를 불렀던 위대한 신들과 함께 자신의 문학 작품을 소개한 적이 몇 번이었던지 모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장에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읽습니다. 이것은 모두 왕의 자료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처음 세 가지 점을 보세요. 그는 신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신적으로 선택하셨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여러 번 선택되었습니다. 둘째,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신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신적으로 능력을 얻습니다. 본문은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선지자들에게 임한 영을 취하시고, 그 동일한 영을 사울에게도 임하게 하시므로 사울이 실제로 예언할 수 있다는 사실을 크게 지적합니다. 사울이 왕의 정확한 모델이라는 그림을 제시하기 위해 본문은 매우 길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는 영으로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고,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성령으로 능력을 얻었습니다.

모세의 영을 강조하는 민수기 11장의 중요한 구절과 모세에게 있었던 능력을 부여하는 영이 여호수아에게 부어지고 모세가 신성한 특권을 받는 신명기 34장 9절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구약에서 야벳과 친밀한 관계의 원형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모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인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몇 시간이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단지 왕의 원형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사람과 사람,

존재와 존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원형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왕이 되는 기준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모세가 중심 지도자의 최고의 모범임을 시사하는 네 가지 요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모세, 본문의 증거와 반향입니다. 이제 이에 대한 적절한 카메라 샷을 얻었으므로 이것이 코스 문서에 없더라도 노트에서 검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언제든지 비디오를 중지하고 다음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가능하게 하는 기관 중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가 많은 기적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지팡이는 참으로 왕의 홀이며 바로의 홀에 대응되는 신성한 홀입니다.

즉, 이집트어로 목자의 지팡이는 영어의 물음표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목자의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하는 상형문자입니다. 이 표시가 이집트어로 의미하는 것은 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인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하십니다. 직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땅에 던지라 뱀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썄요, 저는 이것이 왕이 되겠다는 파라오의 주장에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라오는 그의 왕관에 이집트 왕권의 상징인 뱀의 상징 외에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좋아요, 글썄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단지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시편 23편을 읽으시면 주의 지팡이와 지팡이가 저를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은 왕권에 대한 놀라운 확증입니다.

둘째, 루트 마샤흐는 히브리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오직 다윗 왕조와 관련해서만 나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어원적 근거가 되는 마샤흐는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왕을 지칭할 때 오직 왕에게만 사용됩니다. 셋째,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그 점을 지적하기 위해 매우 주의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파라오에게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왕의 언어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택함받은 왕인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것이 왕권을 생각한 방식입니다. 넷째, 입법자로서의 모세—글쎄, 입법자로서의 왕보다 더 일반적인 왕의 은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를 입법자로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은 왕족의 현상입니다.

슈림의 신명기 33:4-5에서 왕으로 불리며, 본문을 인용하면 아마도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왕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 중 하나는 그가 결코 왕으로 불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신명기 33장에서 누군가가 왕으로 불렸다면, 그것이 주님이시거나 모세이시라면, 거기서는 모세가 왕으로 불렸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야샤르(Yashar)라는 어근은 모세가 사용한 것으로서 왕족의 유사어가 많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야샤르의 근본이니라 따라서 루트 Yashar와 해방을 뜻하는 단어 중 하나인 Mesharim 사이에 연결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글쎄요, 서두르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요점들을 적어두고 스스로 공부해 보세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12장에서 모세는 젓먹이는 아버지가 젓먹이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네 품에 안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것들을 젓먹이처럼 품에 안고 있는 것은 바로 함무라비의 에필로그, 법전에서 말한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방식의 맥락이기도 합니다. 여덟째, 모세의 최고의 은유함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이 강단에서 설교될 때 항상 모세가 왕이 아닌 것처럼 묘사됩니다.

실제로 은유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이는 성경뿐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 전체에서 전형적인 왕실 용어입니다. 은유한 왕에 대한 이 강력한 이미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보려면 은유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곳의 사역을 살펴보고

메시아 시편, 시편 45편, 스가랴 9:9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온유한 용어가 왕실 용어가 아닌 것처럼 실제로는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전역에서 잘 알려진 왕실 용어라는 것입니다. 아홉번째, 하인.

우리는 앞서 노예가 실제로 왕실 용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칭호입니다. 수십 명의 고대 근동 왕들이 '나는 이러저러한 신의 노예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모세는 나의 충실한 종으로 묘사됩니다.

열째, 모세는 언약을 주는 왕의 대표자인데, 왕이 조약에서 신을 제시하고 조약에서 신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왕족의 현상이다. 또한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이라 불림을 받고 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주목하라. 친구들이여, 용어는 그들을 이집트 밖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목자 용어이고 왕실 용어입니다.

그는 목자 역할을 하여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그분은 사람을 임명하여 나가고 들어오게 하신다. 이것이 목양의 왕어이다.

두 번째 요점은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왕실의 언어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임한 영을 받아 왕권을 준비했습니다. 즉,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데 중심이 된다.

모세는 민수기 27:20; 모세가 그의 영예를 바친다고 말할 때 그것은 히브리어 hod이고 그 단어는 언제나 괜찮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진술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다른 모든 곳에서는 호드(hod)가 왕실 용어인데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호드, 곧 왕의 명예를 여호수아에게 두셨습니다.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실합니다. 그것은 왕실의 칭호입니다. 아마도 모세의 빛나는 얼굴은 리피트 이슈타르 에 가기 때문에 왕족의 징표일 것이고, 그는 빛나는 얼굴을 가진 영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말은, 나는 계속해서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족이지만 눈치채지 못하는 어휘군, 즉 그가 이끄는 단어, 먹이를 주는 단어, 목양하는 단어, 목양하는 단어 등 인식되지 않는 용어가 수십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모세가 왕이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분명한 왕의 용어로 언급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고, 모세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갔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왕의 도시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왕의 수도가 왕좌에 앉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약에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왕권이 중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약의 다른 어떤 왕과도 달리 모세의 실패는 훨씬 더 인간적이며, 모세는 왕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기준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지팡이를 한 번만 잘못 사용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는 바위를 한 번 치는 대신 두 번 쳤습니다. 나는 지팡이가 왕권의 상징이라는 주장과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오용함으로써 하나님은 모세가 강론으로 땅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의 모든 왕들은 왕권을 범하면 실격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보를 검토하는 동안 이러한 생각이 고대 근동의 왕권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왕실의 예를 들어보면, 수천 개의 숫자를 취한다면 나는 단지 한두 가지 예만 제시했을 뿐입니다. 만약 내가 고대 근동의 왕권과 성경에 나오는 왕권과 관련된 모든 예를 고대 근동에서 추정하는 데 내 인생을 바쳤다면, 나에게도 수천, 수천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에게 아주 아주 작은 숫자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권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왕권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왕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경우처럼 인간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실패하고 심지어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임을 보여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모세에게서가 아니라 성취되었음을 보여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에 따르면, 왕권에 대한 이 전체 개념은 히브리어 이야기에서 가장 누락된 기본 연결 장치 중 하나입니다.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는 유일한 신학은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신학 중 하나입니다. 나는 왕권이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계시적 은유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구현된 왕권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이는 저를 놀라게 하는 인생의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나는 설득력 있고 완벽하게 명확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세상이 나의 위대함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개인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단지 여러분에게 증거를 보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단지 이것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그 설교가 옳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내 접근 방식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고대 근동의 재료를 건물의 기초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고대 근동 자료가 손전등과 같다는 점에서 더 많이 생각합니다. 비교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거기에 있는 비교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경 본문에 빛을 비추고 있지만 그 기초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본문의 기초는 분명히 하나님 자신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말하고, 나는 수업 노트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실패를 보여주는 일곱 가지 요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실패하자 이스라엘은 사사기에 나오는 국가, 즉 핵심적으로 부족주의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로 돌아갑니다. 열 지파는 두 지파를 질투합니다.

두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의 영토를 크게 삼켜버린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사기에서 우리가 가졌던 것처럼, 분열을 초래하는 부족 간의 질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죽음과 르호보암의 등장으로 우리는 부족주의의 귀환을 보게 됩니다. 이는 구약의 이야기에서 결코 정복되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은 분열된 군주제 시대인데, 그것은 솔로몬의 죽음과 분열된 이스라엘의 귀환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와서 그가 거절할 수 있는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고, 그렇게 하나의 왕국이 이제 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가장 큰 적은 당연히 앗시리아였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일찍부터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였으며, 그들은 북쪽에서 가장 큰 왕조를 세웠습니다. 아합과 그의 추종자들은 앗수르가 두려워해야 할 강국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인식했습니다.

이집트는 계속해서 역할을 했지만 이집트는 결코 초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초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해양민족운동 이후에는 단지 이웃세력일 뿐이었다. 북왕국이 멸망한 뒤 앗수르 제국은 멸망하고 서쪽에서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으로 대체되었으며, 왕정시대를 끝낸 것은 후자의 국가였다. 그럼 잠시 시간을 내어 아시리아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지도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초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르곤의 왕국, 즉 우르 3세 왕국은 위대한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커서를 따라가거나 마커를 잡겠습니다. 이전에 그곳에 있었던 왕국은 이 메소포타미아 분지를 통치했던 왕국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만큼 훌륭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비옥한 초승달 전체, 비옥한 초승달 전체 등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 최초의 초능력입니다. 아나톨리아의 대략 절반인 아나톨리아까지 통치하며 보시다시피 이집트 전체를 통치하고 동쪽으로는 역사적으로 이웃한

이란 영토를 통치합니다. 아시리아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통치한 최초의 제국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초강대국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초능력이 뒤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보라색으로 표시된 최초의 신바빌로니아 제국인 신바빌로니아의 경우, 이것이 뒤따른 제국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느부갓네살의 제국입니다.

이 제국은 훨씬 작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는 엘림을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디 성경 지도책에서 나온 이 지도는 보시다시피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실제로 이집트를 통치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바빌로니아 제국의 실제 국경을 원한다면 신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왜냐하면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천년의 간격을 두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옛 바빌로니아 제국의 계승자이기 때문입니다. 옛 바빌로니아 제국은 함무라비 왕이 세운 제국이었습니다.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제국이다.

따라서 실제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통치했지만 그것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지배한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초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일어날 일을 살펴보면,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은 페르시아였습니다.

이 지도는 실제보다 작게 보이기 때문에 불균형적입니다. 저와 함께 보시면 이곳은 인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전성기에는 인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파키스탄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이곳을 지배했습니다. 그것은 여기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러시아라고 부르는 곳 까지 코카서스 산악 지역 까지 지배했습니다.

그것은 현대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인 트라카까지 통치했습니다. 그것은 아라비아해까지, 이집트까지, 그리고 리비아까지 다스렸습니다. 가장 큰 규모로 볼 때 이곳은 모든 제국 중 가장 큰 땅덩어리였습니다.

이 경이로운 땅 덩어리는 아마도 로마 제국만큼 많은 인간을 지배하지는 않았지만 더 큰 땅덩어리를 지배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대영제국이 탄생하기 전까지 이보다 더 큰 제국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페르시아 이후의 제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단순한 이유 때문에 초능력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정복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는 결코 그것을 합친 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가 죽은 해에 그 사건은 여러 정치적 실체로 분열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소위 알렉산더 제국은 여기에 마케도니아와 헬라스를 추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페르시아 제국을 대체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진정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면서 후속 제국에 대해 보여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마지막 제국, 로마제국이다. 보시다시피, 그것은 초능력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중해 전체를 원을 그리며 통치했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 있듯이, 이 제국은 또한 고대 역사 전체의 어떤 제국보다 더 많은 인간을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보았으니, Moody Bible Atlas를 구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Zondervan은 훌륭한 성경 지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르타, 카르타, 카르타 성경 아틀라스.

좋은 성경 지도책을 구입하십시오. 나는 모든 성경 연구생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Moody Bible Atlas의 멋진 지도를 통해 저는 첫 번째 초강대국이 아시리아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갈 곳입니다. 하나님은 역사가 우리 눈앞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볼 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온 세상을 위한 신성한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러한 초능력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이 온 세상에 축복이 될 것임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전체 세계 현상의 일부는 최초의 세계 초강대국의 부상입니다.

물론, 잠시 멈춰서 웃을 수 있다면 이 제국의 크기를 보세요. 대략 1,500에서 2,000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거대한.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레이저의 색상을 관찰해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100마일짜리 작은 점이 보이나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2,000마일의 출력. 절망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100마일 단위를 통해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군사적, 정치적 실체와 관계를 맺으실 수 있었습니까? 올림픽에서 말했듯이 게임을 시작하십시오. 항상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을 신성한 책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지역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지구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100마일. 저는 이곳 버지니아 주 린치버그에 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 린치버그에서, 버지니아 대학교가 있는 샬로츠빌에서 린치버그로 29번 남쪽으로 가서 린치버그에 도달하고, 알타 비스타까지 15마일 더 가면 여기 린치버그에는 이스라엘 크기의 그림이 있습니다. Charlottesville에서 Alta Vista까지 뻗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작은 땅이 세상을 바꿀 이야기를 뒷받침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항상 알 수는 없더라도 그 이야기는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아시리아는 어떻게 초강대국이 되었는가? 나는 경제적, 심리적, 민족적, 지리적이라는 네 가지 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들 중 첫 번째를 경제적 고려사항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지도로 돌아가서 보면, 고대 앗시리아의 심장이 바로 여기 이 작은 구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수바르투(Subartu)라고 불렀으나 오늘날에는 아시리아(Assyria)라고 불린다.

이 작은 섹션에는 경제가 이 거대한 초능력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리아 고유의 지역은 기회가 있을 만큼 많은 인구를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농지를 갖고 있었고, 그런 다음 이들을 합치면 적절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 작은 지역이 더 큰 지역보다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쪽에서 우리가 본 것은 토양의 비옥도가 점진적으로 상실되고 그 아래에 있던 도시와 도시 국가가 쇠퇴했기 때문에 고대 경제가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경제는 쇠퇴하기 시작했고, 이는 아시리아인들에게 경제가 역할을 시작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경제에는 여기 수메르와 아카드의 경제에는 없는 몇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장점은 무엇입니까? 글썄요, 앗시리아의 부상과 함께 우리는 철기 시대에 있습니다. 철기 시대에 앗시리아가 가졌던 이점은 우리가 터키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발견된 철 매장지와 바로 이웃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냥 아나톨리아라고 부르겠습니다.

첫째, 아시리아는 철 매장지에 가깝습니다. 이는 특히 그들을 막을 아나톨리아 왕국이 더 이상 없을 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둘째, 아시리아는 여기 위의 아나톨리아와 자그로스에서 모두 얻을 수 있는 목재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아시리아는 목재와 금속에 가깝기 때문에 이 지역의 다른 정치적 실체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이곳은 남쪽에 있는 것과 같은 훌륭한 곡물 생산 품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쪽에서 일어난 일은 남부와 중앙 지역이 곡물 생산 품질을 어느 정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고려사항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아시리아는 제국의 근원, 즉 제국의 본질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시 우리의 첫 번째 요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제가 심리적 고려 사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심리학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심리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항상 나 자신을 놀려야 합니다. 페그와 나는 성경대학에 다녔고, 우리에게 심리학 과정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심리학 강좌에 대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심리학에 대해 단 한 가지도 배우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남자를 정말 싫어하는 여자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심리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용어를 검색했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을 말할 때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시리아인에 관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들의 주요 신들이 모두 전쟁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처음부터 이웃 국가와는 다른 호전성을 강조했음이 분명합니다.

즉, 그들의 주요 신은 모두 전쟁의 신이라는 점에서 메소포타미아와는 다르다. 둘째, 그들은 아시리아와의 전쟁이 종교적인 행위였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독특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물론 시간이 부족한 것이 문제지만, 아시리아 왕이 군복을 입고 이렇게 활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완벽한 실루엣으로 전쟁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고 방식에 따르면 앗수르는 특정 신들을 대신하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즉, 이는 아시리아와의 전쟁을 종교행위로 결론짓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초기의 설명에 가장 가까운 것일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에게 전쟁은 종교행위였으며, 왕의 종교적 충성심은 얼마나 많은 원정을 수행했는지를 통해 측정됩니다. 왕이 매년 전쟁에 나간다면 그는 종교적으로 거룩한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시리아인들이 전쟁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종교적인 행위였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전의 어떤 것과도 다소 다른 방식으로 정복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셋째, 나는 민족학적 요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주목합니다. 내가 의미하는 바는 아시리아가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정치적 현실을 이끌어내는 정치적 실체이다.

그들을 정복하지 않으면 그들이 당신을 정복할 것입니다. 자, 친구 여러분, 남쪽의 역사적 정치적 실체는 항상 수메르와 아카드의 위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글썄, 지금쯤 수메르는 사라졌지만, 앗시리아 남쪽에는 항상 단검처럼 겨누는 영구적인 민중 권력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처칠의 말을 빌리자면 아시리아의 아랫배를 겨누는 영구 단검이다. 그렇다면 그 하복부는 무엇입니까? 바빌론입니다. 이후의 모든 역사 동안 바빌론은 계속해서 아시리아의 경쟁자였습니다.

아시리아는 바빌론을 사촌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바빌론 사람들은 자신들을 사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시리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앗수르를 통치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남쪽에는 처칠이 발칸 반도 캠페인이라고 불렀던 아시리아의 하복부에 칼이 겨누어져 있습니다. 그는 항상 프랑스가 아닌 발칸 반도에서 독일을 침공하고 싶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바로 서쪽에 있는 앗시리아의 존재에 대한 또 다른 민족적 위협이 있다는 민족적 요인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호전적인 존재인 아라메아의 위협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앗수르의 부상과 함께 아람 왕국도 서쪽으로 흥망하고 있습니다. 앗시리아가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처럼 아람인도 동쪽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앗시리아는 아람인에게 정복될 것이고, 아니면 앗시리아가 아람인을 정복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초래하는 현상은 아시리아가 남쪽과 서쪽으로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 현상입니다.

이것이 제가 민족학적 요인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앗시리아의 오랜 역사를 통해 앗시리아가 그들을 정복했거나 그들이 앗시리아를 정복할 것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민족학적 요인이다.

내가 앗시리아의 부상에 대해 언급한 네 가지 요소 중 마지막 요소를 지리적 요소라고 불렀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고 아마도 이 특정 비디오를 마무리하고 다음 비디오로 넘어갈 것입니다. 지리적인 요인은 이렇습니다.

남쪽의 수메르, 중앙의 아카드와는 달리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 분지의 북단에 위치합니다. 덜 눈에 띄는 것은 여기 위에 있는 이 육교인 코카서스는 이주하는 사람들이 아나톨리아나 비옥한 초승달 지대, 때로는 여기 아래로 이동하기 위해 통과하는 육교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그 집단들이 이주해 왔을 때, 이곳 동부의 산악지대를 지나면서 앗시리아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지리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정치적 실체가 지리적 피해 가능성으로부터 실제로 안전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북쪽에 노출되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들은 서쪽에서 노출되었습니다. 그들은 남쪽에서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앗시리아의 지리에 대한 나의 요점은 앗시리아를 안전하게 만드는 앗시리아의 지리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앗시리아를 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처리된다면 현실은 안전한 국경이 부족하다는 것은 앗시리아의 정치적 실체가 안전하도록 국경을 확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앗수르의 역사적 정치적 실체가 안전하려면 남쪽과 북쪽, 동쪽과 서쪽의 사방을 모두 정복 해야 하므로 앗수르의 지리적 노출로 인해 정복하거나 정복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에서 제가 가장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앗시리아가 결코 강대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한 힘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 1250년, 1000년에 아시리아는 중요한 정치적 실체였지만 결코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해양민중운동 이후 앓시리아는 즉각적으로 약세에 돌입했고, 등장하자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따라서 이 테이프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방식으로 해양 인민 운동은 아시리아가 일어나 그 공백을 채울 수 있게 한 공백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를 막는 강대국이 없었다면 앓수르는 역사상 처음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민중운동이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기 위한 공백을 만들었던 것처럼, 앓시리아가 강대국이 되기 위한 공백도 만들어낸 것입니다. 천년 만에 처음으로 남쪽에 큰 세력이 없었습니다. 북쪽에는 큰 세력이 없었고, 이집트는 약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고대의 가장 잔인하고, 사악하고, 소름 끼치는 사람들이 될 차세대 강대국에 산소를 공급하는 진공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멈추기에는 좋지 않은 곳이지만 좋은 곳입니다. 곧 아시리아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3세기가 넘는 악몽의 시대였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 제국 중 가장 오래 살았던 제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이것을 집어 들고 다음 테이프를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 본문과 연결되는 아시리아 제국의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17회기 고대 근동의 왕권입니다.